



이태동

- 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
-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 솔벨로우 멜러머드 학회 부회장, 회장
-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전무이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윤미향 사태 본질과 ‘親文 홍위병’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 되겠지만, 권력이 폭력적인 힘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 철학자 부르크하르트는 “권력은 어떠한 자가 그것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 자체는 악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주장한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서처럼 올바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에 사용될 경우 그것은 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게 가해지고 있는 집단 권력의 횡포는 참을 수 없는 사회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 군대는 꽃다운 나이의 이용수 할머니를 정신대에 끌고 가 무참히 짓밟아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페미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반인간적인 위안부 문제를 지구촌에 알려 약소민족을 짓밟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인함을 규탄함은 물론 희생자인 그들을 돕는 운동을 펼치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회의(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모금운동에 참여 해 왔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이 아리따웠던 시절 위안부 할머니들의 육체를 폭력으로 파괴했다면, 윤미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안부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집단 권력의 힘으로 이용수 할머니를 경제적인 압박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미향은 자신도 모르게 모금을 하며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고발했다. 그 결과 윤의원은 그의 회계 장부에서 기부금 수십억이 사라진 사실과 함께 안성 쉼터 고가 매입,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주택구매 대금출처, 딸 유학비용 출처, 가족 비즈니스에 정의연 사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 없이 부인만하고 있다. 전쟁 유족회가 윤미향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다 맞다”하며 그의 권력행사로 인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의원이 정의연의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비밀조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며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는가는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갖가지 충격적인 증언으로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이성적인 인간이 어떻게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정부 여당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이 윤미향의원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간 기무사 계엄문건·김학의·장지연·버닝썬 사건 등의 경우와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윤미향을 옹호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혜찬 대표 또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인 윤의원에 대해 “일단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조국과 한명숙의 경우에서처럼 빗발치는 여론에 일정한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윤미향의원을 변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여당 지지자들은 홍위병처럼 떼 지어 일어나 허위적인 정보를 갖고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군과 영혼결혼”을 한 “토착 왜구”라고 몰아붙이며 “대한민국을 떠나라”라고 도(度)를 넘는 인신공격을 폭력적으로 퍼붓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다. “이 할머니가 노망났다.” “대구 할매,” “참 대구 서럽다” 등의 지역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사용해서 온 나라를 정파 싸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혼탁한 역사의 물결이 높을수록 정의에 기초를 두고 나라와 국민을 편견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무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연민의 대상인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배치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 정치적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 될 수 없음은 물론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문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권좌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취임 후 공식행사에 4번 할머니

니를 공식 행사에 초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할머니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거나,” 할머니 상처를 아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깊은 아픈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고발된 윤미향의 여당 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윤미향의원처럼 이용수 할머니를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버린다는 저항의 목소리가 비등하게 나타나게 됐다.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든 권력을 사용해서 정파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라를 잃고 외인부대의 성노예로 짓밟힌 힘없고 나약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착취하는 것은 문대통령이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잦아들지 연일 비등하게 되었다. 결국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 집)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자 대통령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특유의 수사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균형을 잃은 모호한 시각으로 상황의 본질을 덮으려는 듯한 자세를 내밀히 드러내어 국민들을 더욱 더 실망케 했다. 문대통령은 ‘30년간의 위안부 운동은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말하며,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를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의 ‘30년간의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윤미향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윤미향·정의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하며 여론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사안의 핵심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위안부 운동을 폄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로 윤미향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윤미향의원 비리 의혹 문제를 명확히 밝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의 힘으로 덮고 가려 하면 집권 세력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독재 국가로 추락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고립됨은 물론 마침내는 전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한다”고 19세기 영국 정치가 액튼은 말했다.